

정확히 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김태주 대표수의사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오래전, 그러니까 80년대가 아니었더라도, 90년 이후 최근 몇년전 까지만 해도 전국 방방곡곡 세미나 석상 또는 개별농가를 방문할 때마다, 돼지콜레라의 문제점 및 백신접종 등에 관해 얘기할라치면, 우스꽝스럽게 여기며 아직도 콜레라 얘기를 하느냐며 비아냥거리던 자들이 되려 돼지콜레라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웬지 씩씩해 진다.

양돈 경력이 '십수년인데 우리네들 앞에서 아직도 그런얘기냐?'며 PRRS가 어떻고, 글래서병, 또 어떤 신종병에 대한 대책이나 얘기 하라며 앞서가는 양우쫓거리던 그들의 핏대어린 얼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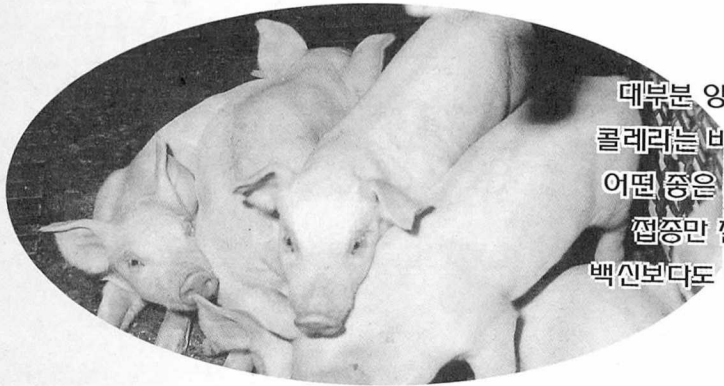
내 농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서기 좋아하고, 남의 일에 간섭이나 일삼으며 말로만 다해 버리는 자들도 많이 보았다. 이것이, 어찌면 값비싼 것, 크고 새것만을 선호하는 우리네들의 고질병인 최고(最高)병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떠들어 대고, 강요하다 못해 하소연 했어도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그런 행태가 빚어지는 것은 아닐는지, 지나친 표현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다. 차라리 무식하여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한다면 이해가 되련만, 잘난체 하고 말로는 기가 막히게 척척 해대는 사람들 까지도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치 않았다면 말하여 무엇하랴!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의 뻔뻔스러움으로서는 더 뜨거운 꼴을 보아야만 정신을 차리겠다는 속셈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 놓았을 지언정 왜, 애꿎은 사람들 까지도 그 무덤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단 말인가! 선량한 다수를 위해서라도, 몇 사람들의 실수마저 인정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속성으로는 너무 늦고 피해가 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면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돼지콜레라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수없이 강조해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말 관심있게 대처해 온 양돈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반복되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백신접종 만이라도 정확히 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의 개요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알고 있겠지만,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 질병이므로 항생제나 다른 어떤 좋은 치료 방법이 아직 없다. 다만 백신 접종만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다른질병 백신보다도 아주 좋은 면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백신접종 후 빠른 경우 3~4일부터 2주 전후면 높은 면역효과가 나타난다. 국내에선 조직배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알고 있겠지만,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 질병이므로 항생제나 다른 어떤 중을 치료 방법이 아직 없다. 다만 백신 접종만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다른 질병 백신보다도 아주 좋은 면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 생독백신(LOM주)이 시판되고 END음성 생독은 백신바이러스와 감염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백신도 실용화 단계에 있는 것 같다.

2. 왜 근절되지 않는가?

- 1) 근절의지 부족
- 2) 백신 미 접종
- 3) 접종방법, 시기, 보관 문제나 누락
- 4) 면역억제인자 작용

3. 어떻게 할 것인가

1) 수출업체나 당사자들만의 의지로는 안된다. 총체적 문제로 당사자나 지도책임자 등에게도 신상필벌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미접종 농장에 대한 정책지원상의 유·불이익이나 지속적인 불응일 경우 농장을 폐쇄시킬 정도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2) 지역별로 전문수의사 또는 민간 위탁용역 등으로 계몽 및 접종여부 파악, 확인작업을 대대

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3) 접종 방법이나 누락, 시기, 보관문제 등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수의제도를 도입,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책임 추궁까지 하면 될 것이다. 전문 수의사가 부족할 경우 전문수의사 책임하에 방역요원을 양성하여 백신접종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4) 혈청검사나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농장마다 이행항체가 따른 정확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농장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률적인 프로그램들도 이런 차원에서 재 점검하여 그 농장의 실정에 맞는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모든 백신접종 프로그램들을 정확한 접종시기를 찾아 각 농장에 접목시키도록 하되 당장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여 항체 형성이 높은 다음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접종시기

1. 오염 또는 위험농장 1차 초유전 접종, 2차 60~70주령

2. 비오염농장 1차 5~7주령, 2차 7~9주령

접종방법

근육주사 1두 1침이 원칙이나, 최소한 1돈방 1침 사용

5) 근절의지와 호응도를 유발시키고 국내 전 농가의 항체수준을 올릴 목적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 돈군을 일시에 접종하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쥐 잡는날을 연상하되 1~2년간만 실시)

6) 예산문제가 따른다면, 돼지콜레라 만이라도 다른 품목의 관급백신을 줄여서라도 한가지씩 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번 일을 계기로 양돈 농가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주고, 서로를 자극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백신접종 전문 용역 회사나 수의사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그들을 통해 올바른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 계몽하고 정책적인 지원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양돈**